

“성적으로 말하겠다”

선동열 KIA 감독 출사표

“말이 아닌 성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KIA 선동열 감독이 26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기자들과 만나 2014시즌 출사표를 던졌다.

진정령에서의 세 번째 시즌, 앞선 미디어에서 “말을 아끼겠다”고 했던 선 감독은 이번에도 “말이 아닌 성적을 얘기하겠다. ‘우승’을 자신하던 지난 두 시즌과 달리 이번 시즌에 대한 목표는 거창하지 않았다. 하지만 비장했다.

선 감독은 냉정하게 KIA의 현실을 먼저 얘기했다. 득보다는 실이 많은 해, 당장 투수 로테이션 꾸리는 것도 쉽지 않다. 김진우의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면서 출발부터 험난하다.

선 감독은 “한 톨 정도 김진우가 빠질 것으로 봤는데 상황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 당분간은 장담할 수 없다”며 “현재 상황은 지난해와 반대로 가고 있다. 초반부터 잘 나갔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근심이 많다. 초반부터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다”고 선발 고민을 얘기했다.

불펜 상황도 좋지 않다. 기대를 했던 젊은 투수들의 난조가 아쉽다.

선 감독은 “사실 불펜쪽에서 승리조가 누가 되어야 할지도 고민스럽다. 어린 선수들이 자기의 공을 믿고 공을 던져주면 좋겠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다. 타자들에게 끌려가면서 어려운 승부를 하고 있다. 일단은 경험 많은 선수 쪽에서 풀어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KIA는 김진우가 부상으로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되면

“불펜 난조에 마운드 비상이지만

겨우내 땀 흘린 선수들이 최대 무기

경쟁 통한 선발 기용...기회 많이 줄 것”

서 5선발 경쟁을 하던 임준섭과 박준태를 선발로 투입할 계획이다. 베테랑 서재응은 시범경기 막바지 중간계투로 테스트를 하면서 큰 틀을 짰다. 고민 많은 선발이지만 선 감독이 믿는 것은 선수들이다. 간절하게 시즌을 준비한 선수들의 의지가 선 감독이 꼽는 가장 큰 무기이자 자산이다.

선 감독은 “지난해 8위로 시즌을 끝내면서 올 시즌 선수들이 해보려하는 의지가 강하다. 팀 상황이 좋지 않지만 야구는 해봐야 하는 것이다. 해보려 하는 선수들의 의지가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고 믿음을 보여줬다.

이대형을 중심으로 한 스피드와 야수진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점도 올 시즌 KIA의 반전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특히자로 이대형을 낙점한 선 감독은 “(이대형이) 시범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새 환경에서 많이 밝아진 것 같다. 1번 타자의 경험도 있으니까 특타자로 기대를 하고 있다. 기동력을 최대한으로 살릴 계획이다. 선수들에게 그린라이트를 주고 많이 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인 강한울, 박준태의 활약과 전천후 내야수 김민우의 영입 등으로 지난해보다 더 치열해진 경쟁, 외국인 선수도 예외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선 감독은 “필이 마지막 연습경기에서 홈런을 때렸으니까 자신감이 붙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시범경기에서 좋지 못해서 침체된 부분이 있었다. 좋은 모습 보여줄 것이라고 믿지만 현재는 (김주형이) 더 앞서 있는 모습이다. 감독 입장에서는 좋은 선수를 쓸 수밖에 없다”며 치열한 경쟁을 주문했다.

올 시즌 개막전 상대인 삼성을 만나는 각오는 남다르다. 부동의 우승후보로 꼽히는 상대이자 지난해 유난히 약한 모습을 보였던 천적이기도 하다.

선 감독은 “128경기 다 이기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럴 수는 없다. 특정팀에 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 폭을 좁히면서 대등한 성적을 내야 한다. 긴 말이 필요 없다.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며 2014시즌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양현종·김주형, 확실히 다르다”

선수들이 뽑은 올해의 기대주

“양, 최고의 직구” 24표

“김, 야구 알고 한다” 9표

KIA 선수들에게 물었다. 누가, 왜 올 시즌 가장 기대되는가.

선수단이 직접 뽑은 올 시즌 키플레이어이자 기대주는 투수 양현종과 타자 김주형이었다.

투수에서는 압도적인 지지가 나왔다. 양현종은 34표 중에서 24표를 독식했다. 특별한 이유가 필요 없었다. 두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로 페이스가 좋기 때문이다. 윤석민이 떠나면서 비어있는 에이스 자리를 채워줬으며 하는 기대감까지 이어졌다.

김민우는 “구위가 장난이 아니다. 지금까지 본 좌완 중에서 최고의 직구다”며 엄지 손가락을 치켜들었다.

박기남의 칭찬은 특급이었다. 일본 진출을 지원하며 양현종 최고의 해를 기원했다. 홀트·어센시오·필 세 명의 외국인 투수도 이구동성으로 양현종을 지목했다.

포수 김상훈에게도 양현종의 기세는 남다르다. 김상훈은 “지금까지 해온 과정이 완벽했다. 아픈 곳도 없고 구위도 좋고, 잘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신인 강한울에게도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남다른 공이다.

송은범에게는 6표가 쏟아졌다. KIA 마운드의 키를 쥐고 있는 선수라는 평가다. 또 지난 가을

그리고 이번 겨울을 보내면서 ‘정말 열심히 했다’는 귀엽도 있었다. 선수들이 뽑은 투수 양현종도 송은범을 지목했다.

홀트는 일본 다승왕다운 실력을 발휘할 것 같다는 평가로 2표를 받았다. 승리를 완성해야 하는 심동섭과 어센시오도 한 표씩 가져갔다. 수호신 어센시오 그리고 어센시오를 불러내기 위해 심동섭이 필요하다는 의미였다.

고른 전력의 타석에서는 김주형이 9표를 받으며 나지완·이범호(이상 6표)에 앞서 가장 많이 언급됐다. 경쟁자인 외국인 타자 필도 김주형을 꼽았다. 마무리 어센시오의 선택도 김주형이었다.

홍세완 타격 코치는 “어렸을 때부터 봐왔는데 올 시즌은 다른 모습이다. 야구를 알고 한다는 느낌이 있다”며 기대를 보였다. 임준섭·한승혁 등

투수들 눈에도 김주형의 타격감이 눈에 띈다. 6표를 받은 나지완에게는 ‘절박함’이 있다. 야시안게임에 도전하는 나지완에게는 시즌 도중 군입대를 해야 할 지도 모르는 절박한 해다. 4번 타자로서 중심을 잡아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지완의 이름을 부르게 했다. “우리 형이니 믿는다”며 안치홍도 사심을 더해 나지완을 꼽았다.

이범호의 부진 탈출을 예감하는 이들도 많았다. ‘꾸준함’으로 타선의 중심을 잡아줄 것이라는 반응이다. 시범경기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타격을 보여주면서 주장과 중심타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모습이었다. 이범호 스스로도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이름을 외쳤다.

‘슈퍼 소년’ 이대형도 5표를 받았다. 시범경기에서 보여준 실력과 1번 타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는 바람이 고무 섞였다. 전전에서 이대형이 공격을 열어 줘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다.

안치홍은 타자 기대주 1위 김주형이 선택한 선수. 김주형은 지난해 실패를 딛기 위해 이를 악물고 올 시즌을 준비했다며 안치홍을 응원했다. 올 시즌도 꾸준할 것 같다는 신종길, 선구안과 스완이 돋보인다는 이종환 그리고 신인답지 않은 배짱을 갖추었다는 강한울도 한 표씩 받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양현종



김주형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시험협회 **트라이슈머**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1. 시공전 / 단열메이커시트시공
2. 단열메이커시트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막코팅 시공
4. 옥상 시공 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 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델링 팀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는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저탄소 녹색(Green)환경**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